

새 삶을 얻은 '조로증' 소녀

열다섯 어린 나이에 육십이 넘는 할머니 얼굴을 하고 살아야 했던 중국 소녀가 성형수술로 새 삶을 얻었다.



중국 선양시에서 살고 있는 샤오 평(가명)은 남들보다 8-10배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조로증'(허친슨-길포드 프로제리아 신드롬)을 앓고 있다. 조로증은 800만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공식 집계된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155명 정도에 불과하다.

노화는 돌이 지난 무렵부터 눈에 띄게 진행됐다. 샤오 평의 아버지는 "돌이 지나고부터 피부가 축축 처지더니 주름이 생겼다. 자라면서 증상은 더 심해졌다." 라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었다. 성형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외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 탓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지난해 초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학업도 중단하고 라오닝성 진저우시 헤이산현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오 평은 인터넷으로 중국의 유명 자선사업가 구오밍이를 알게 됐고 그에게 "나는 열다섯 살이지만 육십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다.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구오밍이는 샤오 평에게 성형수술을 시켜주기로 했고 병원 측은 수술비 70%를 감면해주었다. 그래도 수술에는 50만 위안(약 8만 달러)이 필요했다. 구오밍이는 샤오 평을 자선마라톤 등 모금행사를 이어갔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

19만 위안의 성금을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수술이 시작됐다.

병원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10명의 외과의사와 3명의 마취과 의사, 5명의 간호사가 참여해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수술에서 총 7cm 두께의 피부를 제거했다." 라고 밝혔다. 또 코와 입, 눈썹을 재건했다.

수술 후 거의 한 달 만에 마주한 샤오 평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감격하듯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오늘은 딸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샤오 평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은 애초 소녀에게 받기로 했던 수술비 50만 위안을 탕감해주었다. 병원 측은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이 소녀의 회복과 앞으로의 학업에 사용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자들

지난 20일 AFP통신 등 언론에 공개된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한 동물원 사자들의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속 사자들의 모습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백수의 왕'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이 사자들이 사는 곳은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 위치한 알-쿠레시 파크이다. 동물원 관계자는 "모두 5마리의 사자들이 살고 있었으나 수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라면서 "이중 한 마리는 결국 음식도 약도 없어 얼마 전 죽었다." 고 밝혔다.

사자들의 이같은 사연은 주민인 오스만 살리가 사진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호주 산불로 많은 소중한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피가 끓었다."면서 "이곳 동물원의 사자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인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곳 사자들이 이렇게 굶주리게 된 이유는 동물원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도 꿈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수단은 식량 가격 폭등과 외화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 1993년 미국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수단은 오랜 시간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거래 등에서 제약을 받아와 경제적인 봉쇄를 당했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동물원 사자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죄수 70여 명 터널 파고 단체 탈옥



파라과이의 한 교도소에서 강력 범죄자 최소 75명이 단체로 탈옥했다.

지난 19일, 문제의 교도소에서는 브라질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갱단의 일원 및 강력 범죄자 최소 75명이 직접 판 터널을 이용해 유유히 탈옥하는데 성공했다. 이 교도소는 브라질 국경 인근인 페드로후안카바에로에 위치해 있으며, 문제의 터널에는 탈옥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과 신발 등 물품 200여 개가 버려져 있었다.

현지 경찰은 "탈옥에 사용된 터널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내부 조명까지 완벽하게 설치돼 있었다." 고 전했다.

당국은 터널이 매우 발각되기 쉬운 정도로 허술하게 은폐돼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죄수들이 터널을 파는데 가담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교도관도 탈옥을 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파라과이 당국은 교도소 보안 책임자를 해고하는 한편, 교도소 관계자들이 죄수들의 탈옥 준비 여부를 알고 이를 도왔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한 변호사는 "교도소는 상당한 규모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탈옥한 죄수들은 분명 브라질 국경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당국은 국경 지역의 보안을 더욱 강화해 탈옥한 강력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만약 그들(파라과이에서 탈옥한 죄수들이) 브라질로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로지 연방감옥으로 가는 티켓 하나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